

Robot-assisted Distal Subtotal Gastrectomy Using da Vinci System: The First Korean Experienc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형우진, 송창수, 정재호, 이우정, 최승호, 노성훈

(배경 및 목적) 최근 위암의 치료에 있어 복강경 술식의 적용은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재원기간의 감소로 인한 빠른 사회생활로의 복귀 등을 장점을 갖고 있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강경 술식이 가지는 단점으로 2차원 영상, 좁은 시야 및 기구의 자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술식의 습득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da Vinci system은 기존의 복강경 기술에 3차원 수술시야를 확보하고 endowrist라는 증가된 자유도를 갖는 기구를 이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학습곡선을 단축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복강경 수술 분야에 새로이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da Vinci system을 이용한 조기위암 환자에서 적용한 근치적 위아전절제술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37세 여자환자로 건강검진에서 위암으로 진단 받았으며 과거력 및 문진상 특이 소견 없었다. 환자의 체중은 56 kg, 신장은 159 cm로 측정되었다. 술전 진단에서 내시경 소견상 위각부 후벽에 IIc 의 병변이 관찰되었고 내시경 초음파에서 SM1 의 침윤도를 보였고 복부 단층촬영에서 위 주변에 림프절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은 다섯개의 port를 이용하였는데 두개의 복강경용 12 mm 투관침과 3개의 da Vinci system용 8 mm cannular를 이용하였다. 수술방법은 기존의 복강경 술식과 유사하게 진행하였으며 port를 삽입한 이후부터 소절개를 만들기 직전까지 da Vinci system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고 위상복부의 소절개를 이용하여 위의 절제 및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원형자동봉합기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수술에 소요된 총 마취시간은 5시간 00분이었으며 수술시간은 4시간 15분이었다. 수술 후 병리소견은 점막암이었고 절제된 림프절의 수는 22개이었다. 환자는 수술 후 3일 오전에 통기가 있었고 수술 후 3일부터 식이를 시작하여 수술 후 4일에 연식을 섭취하고, 수술 후 6일에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결론) 술기상으로 복잡하고 고난이도인 위암의 근치적 위아전절제술도 da Vinci system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향후 많은 예의 경험이 쌓이면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비교하여 da Vinci system을 이용한 위아전절제술의 위암의 치료에 있어 갖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